

GIST, 육군 상무대와 MoU 체결

국방혁신 4.0 기반 AI과학기술강군 육성 추진

- 광주·전남 지역 클러스터 구축 및 로봇, 모빌리티 및 AI 분야 협력
- 국방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 수행 및 인력 교류 등 실질적 협력 기대



▲ GIST와 육군 상무대 5개 병과학교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GIST 임기철 총장, 상무대 육군 포병학교장 양태봉 소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육군 최대의 군사교육시설 상무대*와 국방혁신 4.0에 기반한 광주·전남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은 우리 군이 미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육.해.공 3군의 합동성과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력증강체계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 상무대 5개 병과학교: 육군 보병학교(학교장 소장 박원호), 육군 포병학교(학교장 소장 양태봉), 육군 기계화학교(학교장 준장 박수), 육군 공병학교(학교장 준장 이승재), 육군 화생방학교(학교장 준장 이대위)

이번 협약식은 11월 7일(화) GIST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GIST 임기철 총장, 기계공학부 이재욱 학부장, 최경환 교수, 김재관 대외협력처장과 상무대 육군 포병학교장 양태봉 소장,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 강경일 대령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로봇, 모빌리티 및 AI 분야 공동 기술기획 및 연구협력 ▲국방과학기술 분야 인력양성 교육 수행 ▲학술 및 전투발전세미나, 연구자료 발간 협력 ▲기술 및 전문 연구인력 교류 등을 협력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로봇, 모빌리티 및 인공지능(AI) 분야는 국방혁신 4.0에 근거한 'AI 기반 첨단 핵심전력 확보'에 필수적인 연구 분야로 AI, 로봇, 드론으로 구성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핵심이다.

GIST와 육군 상무대는 광주·전남 지역 클러스터 구축 및 시범사업 운영, 연구인력 양성 및 공동연구 수행 등 AI 기반 첨단 핵심전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의 기획 및 연구개발, 그리고 인력 교류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철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GIST의 로봇, 모빌리티 분야와 인공지능(AI) 관련 연구기술 협력이 국방과학 기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양 기관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연구 역량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GIST와 육군 상무대 5개 병과학교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GIST 기계공학부 최경환 교수, 이재욱 교수(기계공학부장), 김재관 대외협력처장, 이광희 연구부총장, 김상돈 교학부총장, 임기철 총장, 육군 포병학교장 양태봉 소장, 육군 화생방학교장 이대위 준장, 육군 기계화학교장 박수 준장, 육군 공병학교장 이송재 준장, 김택환 대령

한편 GIST는 지난 2018년 12월 육군 보병학교와 첫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GIST가 R&D 자문을 수행하는 한편 해당 분야의 산학협력 장학생이 GIST에 입학하여 학업을 이수하기도 했다.

이번에 GIST는 협력 대상을 상무대 5개 병과학교로 확대함으로써 국방 과학기술의 민군협력 및 미래 육군 전력 교육훈련, 연구인력·기술정보 교류 등 **국방 부문과의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